

사토아키라(佐藤 彰) 목사님의 피난 생활 보고서

연락: 새로운 URL 취득해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URL:http://f1church.com 입니다.
등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www.1ocn.ne.jp-f1church 의 URL 은 폐쇄합니다

후쿠시마 제 1 성서침례교회 웹 사이트는 http://f1church.com 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福島第一聖書バプテスト教会
Fukushima First Baptist Church
후쿠시마 제 1 성서침례교회

우편번호 979-1300
福島県双葉郡大熊町大野 1 9 7 (原子力センター隣)
TEL 0240-32-2313 FAX 0240-32-5405

텔레폰서비스 세상의 빛 (언제든지 3 분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TEL 0240-32-5415

홈페이지에 의견이나 희망등의 메일은 이쪽을 클릭해 주십시오.
목사: 사토 아키라(佐藤 彰)
부목사: 사토 쇼지(佐藤 將司)
전도사: 오카베 게이코(岡部 けい子)

당교회는 여호와증인, 통일교회, 물문교와는 일체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토 아키라(佐藤 彰) 목사의 피난생활 보고서를 게재합니다.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

모든 교회 여러분과 사역자분들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3 월 11 일의 지진 재해 때 저는 도쿄기독교대학 졸업식에 출석하기 위해 치바에 있었습니다.

그 후 도로상황이나 휘발유의 급유 곤란등으로 지금 계속해서 치바에 있으면서 재해당한 성도와
佐藤 將司부목사와 서로 연락을 취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에(三重)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어떤 성도의 집은 반이 붕괴되고 바닷가에 사는
성도의 가족들과는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JR 도미오카(富岡)역은 해일로 흘러가고 도시는
피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강제적으로 전주민이 피난을 명령받고 성도들은 입을 옷 그대로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의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등에 분산됐습니다.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담요도 전원에게 배당되지 않아서
추위 속에서 한 잠도 잘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물도 빵도 없는 대피소도 있었습니다.
걱정인 것은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었던 스에나가(末永) 형제는 95 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강제
피난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밖에 골절, 투석이 필요한 분, 어린아이가 있는 분, 장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등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후 배급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먹밥 한개씩이 배급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로도
쌓여가고 병든 몸과 나이드신 분들이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덧붙여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사선 누출이 더 이상 없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최악의 경우 집이나 마을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물론 교회도 폐쇄가 되면 선교의 역사도 이번의 지진
재해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마을에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교회의 문이 열려 찬미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아무쪼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월 13일의 예배는 물론 출입 금지된 유행타운으로 되어서 예정되었던 세례식도 약혼식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제 성도의 유랑 여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상상하면 압담한 기분이 됩니다만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주님이 역사의 주님으로 새로운 선교의 첫 장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모리 게이이치(森 惠一) 선생님이 오늘 아침 제 전화를 받고는 기도의 요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피소의 성도중 우선 십여명을 아이즈(會津) 교회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각대피소에서 참고 견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즈(會津) 교회에서 식사를 위한 식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금의 제안도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도 폐쇄되고 도시에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만 보수 침례교회 주소록에 실려 있는 교회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후 우편송금은 지진재해로 인해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 일요일에 설마 이런 사태가 되는 줄도 모른 채 ‘히스기야의 긴급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굶은 배움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언자 이사야에게도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해 긴급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앗수르왕이 자기 나라에 되돌아가 니느웨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의 모반으로 망자가 되고 이제까지의 위협이 사라진 오묘한 역사의 전말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 주에 우리들이 긴급한 기도를 요청하고 유랑민같이 각각의 대피소에서 일요일의 성서내용을 음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활동, 선교의 활동이 멈춰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활하도록, 방사능이 멈춰지도록 진심어린 긴급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13일 사토 아키라(佐藤 彰)

PS 3월 14일 우편계좌는 사용 불능 때문에 별도의 계좌로 정정 합니다.
우편계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지우체국에서 International Postal Money Order 를 작성한 후

아래 주소로 송금해주시시오

우송후에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メール : flchurch@beige.ocn.ne.jp

주소 : 〒198-0105 東京都西多摩郡奥多摩町小丹波 135

奥多摩福音の家 内福島第一聖書バプテスト教会

佐藤 彰 牧師

전화 : 81(日本)- 428-85-1424

~~~~~  
영문표기로는

Rev. Sato Akira

Okutama fukuin no ie

135 Kotanba ,Okutama-chou, Nishitama-gun,Tokyo

198-0105 , Japan

Tel: 81(Japan)-428-85-1424

성도들 중에는 대피소생활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장기피난을 예상하고 친척이나 부모형제를 의지하여 다른 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생필품을 산 후 지금부터 대피소를 향합니다. 고마운 것은 장로교회의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피해지역에 물자를 운반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향하게 될 겁니다. 모든 교회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사토 아키라(佐藤彰)목사님이 지진재해 직후인 3/13에 대피소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교회성도 여러분괜찮습니까?

저는 치바의 신학교의 졸업식에서 지진을 만나 그제 물과 식료를 차에 싣고 그쪽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상황등이 정돈되지 않아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안부확인 (100명 확인완료)이나 전 보수침례교회와 제가는 모든 분들께 긴급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三留목사님의 보수침례아이즈교회(會津教会)에서 체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로 마중나가겠습니다. 가까운 대피소에 있는 분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가까운 곳에 온천과 대중탕도 있습니다.

지난 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의 긴급 기도'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설마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시련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 한사람 한사람과 가족을 전능한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주의 자비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모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오쿠마초(大熊町)의 우리들의 교회를 메시지로 다루고 기억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전국교회가 우리들을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모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는 대로 향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며 지내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이 없는 분에게도 회람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13일 사토 아키라(佐藤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

모든 교회 여러분의 기도 감사합니다.

성도의 안부는 그 후 150명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자매는 해일이 발발에 육박하는 위기일발에서 해엄쳐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불가사의 한 일이라고 하시겠지만 바닷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50에서 60명의 안부밖에 알 수 없습니다. 공중 전화로 한사람 한사람의 휴대폰에 안부확인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문득 이것은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에 줄서서 대피소에서 필요한 물자를 산더미 같이 샀습니다.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속삭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만 변명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대피소를 향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외톨이가 된 사람도 있고 3사람이 함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대피소는 온천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좋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떤 곳은 난로도 없고 밤에는 춥고 식료도 조금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워서 양말이나 핫카이로(바디용 핫팩)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말을 가게에서 사왔습니다.

그 후 AU 숭에 가서 대피소에 휴대폰충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남아 있는 충전 코드를 나누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건네 준 점원의 '힘 내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해외 구조팀이 도우러 온다는 등의 뉴스를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요즈음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도로상황과 휘발유의 입수 곤란등으로 발이 묶인 분들을 위해 2시간후인 밤중에 차로 마중나가려고

합니다. 구원 물자를 나르는 2 대의 트럭과 함께입니다. 장로교회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답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용서와 이해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기도에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다녀 오겠습니다. 2011년 3월 14일 22시 사토 아키라(佐藤 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 (3월 16일)

기도 감사합니다. 어제 3월 15일 한 밤중인 1시 구제 물자를 만재한 트럭과 함께 근처 가게에 들러 진열대에 있는 것을 손에 닿는대로 사서 트렁크와 뒷좌석에 가득채우고 우리부부는 후쿠시마로 북상했습니다. 운전도중에 도로의 함몰과 붕괴된 집의 일부를 보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 문제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 뉴스로 원자력 발전소의 재폭발과 방사능누출등 게다가 피난 지역의 확대나 현지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보를 듣고 망설이면서도 내륙로를 선택해서 오전 11시에 아이즈(會津)의 대피소(교회)에 10시간 걸려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약 60 명의 성도 가운데 3 분의 1 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에서 왔지만 아직 피폭 검사가 끝나지 않은 채 오후가 되어서 함류해 곧 예배를 드리는 중에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이곳에 도착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가까운 온천에 갔습니다. 5 일만에 목욕탕에 들어가는 기쁨을 체험하며 아이즈(會津) 교회의 배려에 감격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감동으로 떨려오고 여기저기서 ‘살아 있었어?’라는 말과 함께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는 또 눈 언저리가 뜨거워집니다. 이러한 집시같은 유랑여행은 막 시작된지라 집도 없고 입은 옷 그대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세탁할 것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없습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 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 추위에 몸을 떨며 지내온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생활은 막 시작되어서 우선은 휘발유의 확보와 살아갈 다음장소의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60 명의 대가족이 공동 생활을 하려면 국가긴급사태 속에서 판단이 어려워 결국 야마가타로 북상해 장기전을 예상한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피로 때문인지 갑자기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령자에서 아이까지 이야말로 하나님의 대가족으로서 출애굽기와 같이 고향을 탈출한 뒤에는 황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도시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까요? 폐허가 되는 건가요? 2~3 개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교회나 집 문을 여는 날이 올 것인가. 모두가 떠돌고 있는 것 같다. 서로 힘을 합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여행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는 경찰관이 제 차를 특별 재해용 차량이라고 인정해 휘발유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네자와 교회가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진심어린 배려에 감사하고 고맙게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장면과 같은 드라마 인생을 설마 제 자신이 체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 떠도는 이 무리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 편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3월 18일)

매일 여러분의 기도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웬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몇년분의 드라마를 이 일주일동안 체험한 것 같은 ... 재회한 형제자매에게서 대피소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대피소를 무심코 수용소라고 잘못 말하게 됩니다. 제 머리속에서 전시시의 상황과 중복되어버립니다.

한사람 한사람 도피행을 듣고 있으면 불 속과 해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도착한 것이 실감납니다. 어제는 걱정하고 있었던 성도에게서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지진 재해 직후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심장이 받은 멈춘 상태이고 긴급수술이 30 분만 늦었어도 죽은 목숨이 살아난 것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또 다른 자매는 지진 재해 때 직장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것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어 차로 도피하는 중에 도로는 크게 물결치고 있었지만 달려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동승시킨 덕분에 땅이 갈라짐을 피하는 운전의 방법을 가르쳐줘서 연달아 땅이 갈라지거나 펑크로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도 동승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를 빨리 틈새에서 빼내서 대피소에 겨우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는 대피소의 이동을 되풀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친척이 있는 곳에 겨우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기적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쩌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곤궁에 빠지게 하는가라든가', '하나님은 없어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소개 확인이 된 160 명의 형제자매의 입에서는 '주님은 훌륭하시다'라든가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강해진 것인지요.

어제는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세분이 눈물로 신앙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짓눌려고통스러운 지진 재해 속에서 피어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그제 후쿠시마현에서 야마가타현으로 이동하기 전에 가족과 친척에게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지만 한 술 밥을 먹고 지진 재해를 같이 견디어내고 고락을 같이해 온 하나님의 가족과의 헤어짐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 언제 만날 수 있을 지'라는 생각과 함께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마냥 울어버릴 때가 많아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원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12대의 차로 나누어 타고 1m 넘는 눈벽 속의 눈보라 고갯길을 천천히 빠져나와 다음에 체류할 땅으로 향했습니다. '터널을 넘으면 거기는 설국'이 아니고 터널을 넘기 전부터 온 세계인 여기 요네자와 교회의 시설은 일면이 새하얀 눈경치 속에 있습니다. 빠져리는 추위 속에서 교회분들이 따뜻한 우동과 메밀국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주먹밥을 먹는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앞으로가 염려됩니다. 주님! 아무쪼록 이 은세계와 같이 우리들이 섬세한 마음을 하얗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과연 분산된 유대인과 같은(diaspora people)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최후에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 안정될 것인지요. 명확한 것은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 쪽은 이론을 논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쪽은 제 신앙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은 정말로 얼마 안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각각의 흔들을 골수뿌리부터 찢러 움직이시고 기반을 뒤집어 엎어 격렬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경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마치 애급탈출의 장대한 드라마의 막이 열리는 것인지요.

PS:전국의 많은 분들로부터 그리고 해외에서 지원과 성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으로부터도 물자를 보내고싶다는 등의 제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전국각지에서 성도수용의 연락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단지 지금은 그 날 그 날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주세요. 한 번은 우리들도 물자를 대피소에 보냈습니다만 우리들 자신이 재해자로 무리한 일을 하면 다시 일어서는데 부담이 될 우려나 한계점이 있음을 깨닫고 장기전으로 조금씩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전국의 휘발유 궁핍 속에서도 행정부를 통해 휘발유를 탱크에 가득 채워줘서 산을 넘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 드립니다.

사토 아키라(佐藤 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 (3월 19일)

요네자와에 와서 3 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기도와 지원 감사합니다. 재해시의 상황을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들어 보면 그 당시 피난시간이 한 두시간이라서 아무 것도 못 가지고 집을 나온 분이 그대로 피난생활에 돌입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자확보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각지에서 식료품과 의류가 차례로 우리들에게 도착되고 또 그것을 나르는 선생님들이나 형제자매가 와서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매일 양식을 날라다 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내온 성금으로 50 명의 대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피로가 극에 달해 교대로 병원에 다니고 저도 고열이 났습니다. 피난소 한군데에서 이삼일씩 지내며 이동하는 것도 피로가 쌓인 원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기 이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제 1'의 이름도 당시 침례 교회에서 이름지은 것으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보다 교회가 먼저 지어진 것입니다. 운명공동체라고 말하면 과장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이 있는 고장에 사는 우리들의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제 여기서 모두 같이 생활해 온 사원이 사고수습을 위해서 회사로부터의 호출을 받고 원전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남의 일같이 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술 밥을 먹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남은 가족도 같이 배려하며 눈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의 소중한 성도가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쪼록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3월 19일(토) 사토 아키라(佐藤 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 (3월 21일)

우리들은 매일 각지에서 전해지는 격려 메시지나 「50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등의 제안에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누구지요?

어제 2주일만에 일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네자와 교회의 배려로 기타에 베이스 그리고 비디오 촬영까지 모든 기재를 빌려 여행지에서 뜻밖의 혜택 받은 환경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정말로 나도 감회가 복받쳐오르는 것을 억누르기 곤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를 맡은 부목사님이 운 뜻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시도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50년분, 일생 분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실컷 울어 봅시다.

아침,점심,저녁,하루종일 50 명의 대가족의 식사나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비정상적인 일상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상적이고 무엇이 비일상적인가 조차 구별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대 지진 재해의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우리들은 아직 여기서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의 텔레비전에서 지진 재해와 관계 없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여행 도중의 어느 장면에서 일상적인 것을 틈새로 보며 가령 그것이 일시적인 일상에 불과하다해도 잠시 심신을 쉬게 하여 아직 계속되는 비일상의 다음 여로를 향해 에너지를 모아두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드디어 대목자가 되셔서 이 무리를 힘껏 안으시고 그 날개에 태워 자유로이 날라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만해서 미안합니다.

3월 21일(월) 사토 아키라(佐藤 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7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우리들의 생활표를 바꾸립니다. 월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서 몸을 충분히 쉬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의 청소 당번이나 식사준비와 정리정돈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만 밤에 과감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의 서비스로 어린이들이 떠들면서 숟가락을 만들어 먹고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정경을 행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재해자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멋대로 지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온천에 가서 「재해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라고 마음으로부터 상냥하게 말하면 놀랍게도 요금 400 엔이 200 엔으로 변합니다. 말할 때 포인트는 「마음과 정성을 들여」입니다. 정말로 재해당하지 않은 분은 분위기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안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일부터는 당분간은 여기에서 생활을 하리라고 보고 일상생활을 반듯이 하기위해 매일의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오전은 아침 식사와 청소를 마치고 9 시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서로 나눔의 기도시간이 병행되며 성경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10 시반부터는 체조나 게임을 넣어 리프레쉬 타임이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서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은 자본이며 승부입니다. 그 후 어린이들은 오전과 오후에 공부를 합니다. 마치 산 위에 분교같기도 하고 옛날 서당같습니다 .

재해당한 3 월 11 일은 제 54 세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제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보통은 가격표는 잘라서 줍니다만 ‘200 엔으로 산 슬리퍼입니다만’ 이라고 말하며 건네주는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 200 엔으로는 보이지 않는 훌륭한 고무제 슬리퍼를 아까워서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시에 보육원과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졸업 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나도 기분을 바꾸고 더이상 울먹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된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언제였던가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대지진 재해를 당했어도 가게를 습격하거나 싸우지 않고 묵묵히 배급 열에 줄서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지진의 재해는 일본인밖에 견딜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지진 재해를 견디어내는 교회로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땅에 씨앗이 뿌려져 이 때를 위해서 교회를 미리 세우시고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선택한 교회와 목사인지요?

옛날에 어네스트·고든 저 ‘구와이강 수용소’ · THROUGH THE VALLEY OF THE KWAI(Gordon,Ernest)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영국인 인텔리였던 그는 제 2 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타이의 구와이강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인권무시의 가혹한 일본인에 의한 취급과 노동이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교국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모두 형식적인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극한상태에서 궁지에 몰린 그들은 서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지 않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 권의 성서가 펼쳐지게 되고 집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변화되어 갑니다. 약해져 가는 동료들 격려하거나 자신의 얼마 안되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동료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종전과 동시에 다른 수용소에서는 일본군에 대한 복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구와이강 수용소에서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 지옥의 그림같은 곳에서 자초지종을 목격한 어네스트·고든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후 목사가 됩니다. 그 수용소가 마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는 진실한 교회인 것 같아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닳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동북의 시골마을에 사는 보통 사람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돌연 거대한 지진과 높이 14 미터의 대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폭발의 삼중고에 내던져져서 뿔뿔이 되고 집도 고향도 없는 유랑여행이 시작되어 큰 시련 속에 내던져졌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 날 그 때 구와이강 수용소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거기에 두셨다면 우리들도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쁜 뉴스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생명의 말씀사 출판부와 같이 진행해오던 책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뜻밖에도 제목이 ‘순풍 좋고 역경도 또한 좋지요’ 입니다. 정말은 ‘想定外こそ想定内・상정외야말로 상정내’라고 하길 바랐지만 어느 제목이든 이렇게 제목을 내걸어서 발표한 이상 이 지진 재해로 인한 약한 소리를 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 책이 출판될 때에 거대한 지진으로 재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며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명명한 제목에 등이 떠밀려서 한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8

오늘은 3월 24일(목요일)

오늘 아침 예배에서 마태복음 5장을 펼쳤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을 세상의 빛, 땅의 소금이라고 불러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대지진이 큰 환난의 시작이라는 소문이 흉흉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큰 환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흔들리고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히브리서 12 장에는 “**주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훈련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 같이 우리들도 뜻하지 않은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므로 준비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들은 눈덮인 산에서 주의 따뜻한 눈길을 의식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졸업증서에 노래를 바꾸어 섞은 「반딧불의 빛」에 이어서 「우러러 존경하다」 물론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들은 완전히 울보집단이 되고 눈물샘을 멈추는 밸브가 망가진 채 수리공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라고 모두가 마음으로 축복하고 눈물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쩌다가 피해지역에서 부른 「우러러 존경하다」로 바뀐 노래가 어딘가 방송국에서 화제를 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1. 우러러 존경하는 우리스승의 은혜  
가르침의 배움터도 벌써 몇년  
생각하면 정겨웠던 이 세월  
지금이야말로 헤어질 때 잘가시오

2. 재해의 토지에서도 은혜가 넘쳐  
가족이 함께 맞이한 이 좋은 날이여  
당신의 작은 손이 그리워지네요  
새로운 발걸음에 축복있으라

우리들도 드디어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지진재해 졸업식처럼 맞이할까요? 프로야구선수는 경기에 앞서 몸을 단련하며 자기 컨트롤하고나서 출발선에 섭니다. 주님도 이 무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그 때를 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섭시다.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9

3월 24일 오후 5시

밖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썩습니다. 하나님은 겨울이 봄으로 새로이 단장하여 되살아나는 회복력을 우리 안에 계획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해로 전국에서 보내진 물자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기는 없습니다만 연일 여러종류의 통조림과 각종의 물품으로 건강도 유지되어 내면으로부터 부활의 힘이 끓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조림생활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드셔보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갈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지진 재해를 당한 목사로 선택되었다는 사실과 교회도 이미 원자력 발전소의 영향권에 놓여진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요코하마, 도쿄에 예정된 전도집회나 재해보고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괜찮지만 교회를 잃은 것이 무엇보다 슬퍼요’라는 성도들의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울먹거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하고 방주를 일시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줄 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제가 없는 기간 이 양무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각지에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을 날개안에 감싸 품어주시고 보살피주옵소서.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0

기도 감사합니다.

지진 재해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체중을 줄이려 한 제 체중이 삼시간에 줄었습니다. 여위고 싶다면 지진 재해가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재해 속에서도 체중이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 사람은 생명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장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모두에게 웃음 꽃이 핍니다.

게다가 피난 생활로 이상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류가 도착돼 그 중에는 신품도 있습니다. 가까운 옷가게에 가서 무료로 가져 가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날마다 패션쇼를 합니다. 속옷을 포함해 전부 얻은 것으로 입고 있습니다. 식사도 평소보다도 좋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깊은 슬픔 속에서도 웃음 꽃이 핍니다.

예전에 엔도 슈사쿠씨가 ‘일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괴로운 것 같기도 해서 “즐 괴롭다”라고 대답했지만 아니 괴로우면서 때때로 즐거운 것 같은 “괴 즐겁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대피소생활이 슬프지만 때때로 즐거운 “슬 즐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슬프고 병든 자를 가없이 여기신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자 되어 어두움의 세계에 뛰어들어 고통을 함께 하시고 기쁨도 슬픔도 그 몸에 지신 구세주를 마음으로 갈급히 찾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복음도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닌 천국으로 통하는 복음길을 예수가 동승한 이 차로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3월 25일(금) 아키라(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1

오늘은 3월 29일(화요일)

우리부부는 4일전인 3월 25일 금요일에 요네자와 하코네 본체(米沢の箱舟本体)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위독해서 긴급입원한 성도를 방문해 전도사님께 보살피도록 부탁하고 사위집에서 1박 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은 요코하마교회를 향하던 중에 성도가 위독상태라는 연락이 온 바로 그 때에 형제가 옮겨진 병원을 우리가 통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해 이후로 저는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전보다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가지 쓸데 없는 것들이 전부 벗겨져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보여주시는 이것이 지진재해로 인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연간 스케줄은 물론 제 예정도 모두가 한순간에 백지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오묘한 스케줄로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의 세계가 떠오르는 것일까요? 이러한 큰 흐름 속에 몸을 내맡기도록 인도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애써 발버둥치지 말고 우리들을 끌어내신 구세주하나님의 섭리안의 세계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요코하마에서 우리부부가 재해로 떠도는 교회에서 와서 그런지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재해로 인해 가난해진 것인지 풍요로운 세계를 걷고 있는 것인지 제 자신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호텔에 묵게 해 주셨습니다. 현지에 계신분들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사위 집에서는 2주일만에 객실인 다다미방에서 자고 그리고 호텔에서는 싱글룸이었습니다. 웅크리고 자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사위집 객실도 호텔도 마치 왕의 대우를 받은 VIP 체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때에 백단 만단으로 튀어나오르는 은혜의 체험도 이렇겠지요.

그 다음날인 28일 월요일에 우리들은 요코하마에서 도쿄로 이동해 기독교출판사분들과 재해 지원단체 분들과 만나서 재해 상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재해 상황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키 방주를 타고 수도권으로 나가 별세계를 엿보며 양쪽 세계의 현실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제 자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회의 경치는 어쩐지 슬퍼보이고 모두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맛있게 느낄수 없고 도리어 저희 둘만이 재해 체험자라는 것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안된 채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12

아내는 20 년전부터 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만 교회성도들이 합숙하면서 각지를 여행하는 꿈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몇번이나 반복돼서 일기에 그 내용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캠프하는 상징적으로 보인것이 아닐까’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제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내 꿈이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아내가 예전에 꾸던 꿈 속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위를 두려워하며 걷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언젠가 어디선가 본 기시감각(déjà-vu)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꿈을 통해서 우리들의 잠재 의식 안에 의식시켜서 대지진 재해를 마음으로 본 적이 있는 풍경과 같이하여 낭패해서 지나치게 방황하거나 허둥대지 않도록 최후에는 각오를 다짐할 수 있게 배려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 흩어질 때도 놀라고 당황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선교길을 떠나간 것 같이 우리들도 또한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고향을 쫓겨났습니다. 이 광경 이 현실 그러고 보니 어디에선가 본 광경이지요. 하나님은 이번엔 우리들이 이 엄격한 현실에 결코 놀리어 으깨지지 않고 깨져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미리 이 광경을 마음 어딘가에 뇌리에 새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해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여행하는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몇그루로 나눈 가족이 이동했을까요? 성서의 세계에 마음이 흡수되버리는(warp) 적이 많아졌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인지, 성서의 세계에 접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 장 13 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통한 길입니다. 그 위를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상정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놓여진 우리들은 정말로 물위를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몸을 의지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하고 언젠가 누군가가 통한 길을 걸어갑시다.

요즘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체중은 줄어든 채로 먹어도 늘지 않는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취직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50 명중에 9 명이 신청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일각의 유예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직 사망자나 행방불명의 수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누출 때문에 3 월 11 일자로 시계가 멈춘 채입니다. 모두 상당한 피로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유령타운(ghost town)이 된 도시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들은 바로 은행이나 우편계좌를 정지시키고 전기, 가스, 전화등을 정지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주님! 표류하는 우리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악한 손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집과 고향거리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시주소서.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업원과 교회성도를 지켜 주소소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일본과 온세계 교회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답례여행을 해야하나... 날마다 별만큼의 수가 늘어납니다. 아! 나의 인생은 지진 재해 후의 사례 여행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모자랄것 같습니다. 나는 지진 재해 이후로 성난 파도와 같이 물려 든 괴로움을 견디어 내고도 남음이 있는 산과 같은 은혜에 압도되었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 편 6 절)